

中國 秦漢代 西安·洛陽地域 木槨墓 研究*

辛 勇 旻

Shin, Yongmin

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기원전 221년 秦이 戰國時代를 마감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하였으며 이후 기원전 206년 劉邦에 의해 漢이 건국되어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갔다. 漢은 다시 西漢과 東漢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수도가 각기 西安과 洛陽으로 定都되고 지역적으로 서안이 서쪽에 있고 낙양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명칭되고 있다.¹⁾

서한과 동한은 다시 세분하여 분기를 설정하고 있다. 서한은 고고학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시기구분하고 있다. 전기는 高祖 원년에서 景帝의 後元 3년까지로 B.C.206-141년에 해당한다. 중기는 武帝 建元 원년에서 宣帝 黃龍 원년까지로 B.C.140-49년에 해당한다. 후기는 元帝 初元 원년에서 孺子嬰 初始 원년 까지인 B.C.48-A.D.8년과 新莽시기인 始建國 원년에서 地皇4년(A.D.9-23)을 말하는데 후기는 학자에 따라 신莽시기 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고고학적 자료 뿐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 상황과도 부합하여 고려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기설정이다.²⁾ 동한 역시 3분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기는 光武帝 建武 원년에서 章帝 章和 2년까지로 A.D.25-88년 시기이다. 중기는 和帝의 永元년간에서 質帝 本初1년 까지로 A.D.88-146년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후기는 桓帝 建和 1년에서 獻帝 建安 24

* 이 논문은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재단의 1999년도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서한은 기원전 206년에서 기원후 8년까지 高祖, 惠帝, 高后, 文帝, 景帝, 武帝, 昭帝, 宣帝, 元帝, 成帝, 哀帝, 平帝, 孺子嬰 등 13제가 즉위하였다. 동한은 기원후 25년부터 220년까지로 시기가 구분되는데 光武帝, 明帝, 章帝, 和帝, 殤帝, 安帝, 順帝, 冲帝, 質帝, 桓帝, 靈帝, 少帝, 獻帝 등 13제가 역시 재위하였다. 서한과 동한은 중간에 王莽이 세운 新(A.D.8-25)에 의해 시기적으로 전후로 양분되므로 前漢과 後漢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2) ① 李發林, 『戰國秦漢考古』, 山東大學出版社, 1991.

② 『中國大百科全書』, 中國歷史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2.

년 까지 A.D.146-220년 시기이다.

漢의 수도인 서안과 낙양은 황하 중류지역인 陝西省의 서안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지역과 河南省의 낙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지역으로 구분되며 이후 漢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지역에는 漢 제왕의 무덤뿐 아니라 귀족무덤과 일반 평민무덤 등 다양한 신분의 여러 묘제가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漢문화의 중심인 이 지역 묘제 가운데 하나인 목곽묘³⁾를 주요 유적에서 확

3) 관과 곱의 구조를 가진 목곽묘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려진 가장 빠른 것으로는 山東省 臨朐縣 西朱封 龍山문화 중후기 유적이다. ① 山東省文物研究所·臨朐縣文物保管所, 『臨朐縣西朱封龍山文化重槨墓的清理』, 『海岱考古』 第1輯, 山東大學出版社, 1989. pp.219-224. ②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工作隊, 『山東臨朐朱封龍山文化墓葬』, 『考古』 1990-7. pp.587-594.

이외에도, 산둥성에는 용산문화보다 빠른 시기의 신석기문화인 大汶口 문화유적의 무덤에서 목곽묘로 보이는 일부 무덤이 조사된 바 있다. (山東省文物管理處·河南省博物館, 『大汶口』, 文物出版社, 1974.) 西朱封 유적은 1987년,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1987년에 조사된 목곽묘는 龍山文化層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동서 440cm, 남북 250cm, 깊이 180cm로 네 모서리를 수직되게 파 내려간 장방형 수혈식 목곽묘이지만 서남부 일부는 단애면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고 방향은 10°로 남북축이다. 피장자는 출토 인골로 미루어 중년 여자로 확인되었다. 구조는 1棺2槨으로 유물칸은 피장자의 좌우측면과 다리 부위에 있다. 외곽의 규모는 410cm×200cm이고 나무판의 두께는 10cm 정도이다. 내부 바닥에는 직경 8cm, 깊이 30cm 정도의 柱穴이 12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바닥 면에는 3개의 목판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결국 형태는 단벽이 장벽에 비해 길게 판을 짠 형태인 'II'형을 띠고 있다. 내곽은 281cm×161cm(장단비 1:0.57), 두께는 5cm 정도이다. 관은 200cm×64cm이고 두께는 역시 5cm 정도로 내곽의 동쪽편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무덤의 특징은 용산문화기 무덤중에서 면적이 비교적 크며 1棺2槨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부에 별도의 유물칸이 구비된 완전한 목곽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용산문화중후기(B.C.2200년경)에 편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가장 빠른 목곽묘이다.

1989년에도 1987년도에 조사한 지역에서 불과 30여m 서쪽으로 떨어진 단애지점에서 2기의 목곽묘(202호, 203호)가 조사되었는데 무덤간의 거리는 3m 정도에 불과하다. 먼저 202호를 살펴보면 이 무덤의 상부에는 周代 무덤이 있었다. 두향은 108°로 동서축이다. 묘광은 2중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 길이 668cm이며 남쪽부분은 단애면에 훼손되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데 잔존길이 220cm-315cm 정도이다. 생토에 있는 2層臺가 동, 북, 서쪽 3면이 확인되는데 동쪽은 너비가 97cm-103cm, 북쪽은 75cm-100cm, 서쪽은 너비가 106cm 정도이다. 2층대와 현재 지표와의 깊이는 65cm-78cm 정도이다. 보강토상에는 적갈색 燒土와 소량의 木炭이 함유되어 있다. 내부는 1棺1槨 구조로 장방형이다. 역시 단벽이 튀어나온 'II'한 형태이며 동-서 길이는 438cm인데 남-북 너비는 파괴로 알 수 없으나 잔존너비는 170cm-200cm 정도이다. 곱 바닥부분의 생토면에 깊이 6cm-39cm 정도에서 반원상의 溝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槨板을 반원상의 목재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곱 정상부는 내부로 함몰되어 관 뚜껑과 중첩되어 있는데 길이로 추정해 볼 때 곱의 뚜껑은 목재 3개가 횡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두께는 약 10cm 정도이다. 관은 장방형으로 264cm×72cm이며 잔존 높이는 20cm 정도이다. 관은 6cm-8cm, 바닥면은 2cm-4cm 두께이다. 관 내부에는 1구의 인골이 있으며 仰身直肢로 두 손은 골반부위에 올려져 있는데 관은 곱의 동단벽 쪽으

인된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다른 지역 목곽묘와 비교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서안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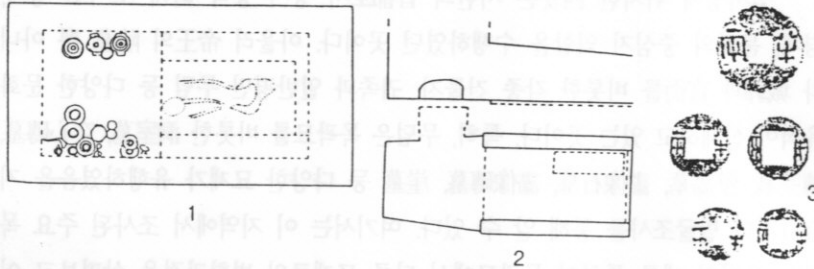
섬서성에 위치한 西安은 서한의 首都로서 당시 중국 최대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이다. 아울러 帝王의 陵墓 뿐 아니라 城郭과 官衙를 비롯한 각종 건물지, 귀족과 일반평민 무덤 등 다양한 문화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무덤은 목곽묘를 비롯한 洞室墓, 空心磚墓, 磚室墓, 壁畫墓, 畫像石墓, 畫像磚墓, 崖墓 등 다양한 묘제가 유행하였음을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 조사된 주요 목곽묘 유적의 예를 통하여 목곽묘에서 다른 묘제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관련된 제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로 약간 치우쳐져 있으며 관내에 유물을 부장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놓았다. 이 곳에는 채색이 된 그릇들 속에 각종 토기들을 부장 한 듯하다. 관내에는 옥기와 각종 장식품과 함께 석기, 골기 일부 토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203호는 202호의 동북쪽으로 약 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묘실은 장방형의 1棺2槨 구조로 동서축이며 두향은 118°이다. 묘광은 길이가 630cm-644cm, 너비는 415cm-455cm이고 깊이는 148cm-172cm이다. 내곽 외부에는 역시 2층대가 있으며 너비는 124cm-144cm이고 높이는 25cm-35cm로 지표면에서 112cm-123cm 깊이에 있다. 네 모서리 보강토에는 적갈색을 띠는 燒土로 목판과 토기편이 포함되어 있다. 외곽은 465cm×275cm(장단비 1:0.6)로 현존 높이 34cm-52cm 정도이고 두께는 12cm-16cm로 두꺼운 편이다. 관 천정부에는 뚜껑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내곽은 '井'형 구조를 띠고 있는데 크기는 385cm×160cm 이고 현존 높이는 50cm-55cm 정도로 두께는 12cm-15cm이다. 관의 바닥면에는 '凹'자상의 결구가 있는데 이는 반원상의 목재를 사용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관 정상부에는 두께 2cm-8cm 정도의 목판을 남-북으로 횡가한 목재흔이 남아 있다. 관은 장방형으로 260cm×58cm-60cm이고 잔존 높이 30cm, 두께 5cm-12cm, 관 바닥 두께는 3cm-4cm에 불과하다. 관 바닥은 동-서로 두개의 나무가 있는데 현존 길이 175cm-185cm, 너비 8cm-12cm, 두께 3cm-4cm 정도로 단면이 반원상이다. 그리고 관내 및 관과 내곽 사이 바닥면에 두께 약 20cm-30cm 정도의 황색토가 깔려 있다. 피장자는 仰身直肢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관과 내곽 북측에 토기를, 곳곳에 彩灰된 흔적이 있는 것을 미루어 채색된 木製 明器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玉器를 비롯한 石製 장식품은 관내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의 토기는 내외곽 사이의 남측 동서 양단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목곽묘들의 시기는 용산문화의 후기(B.C.2000년경)로 추정하고 있다.

1) 鳳翔 高庄 戰國 및 秦代 고분군⁴⁾

陝西省 鳳翔縣 중심에서 약 5km 떨어진 통일전 秦의 수도였던 雍城 주변에서 확인된 戰國時代 고분군이다. 여기서는 모두 46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는데 수혈식목곽묘와 동혈식목곽묘인 洞室墓가 함께 분포하고 있다.



도면 1. 鳳翔 高庄 고분군

1. 49호:수혈식목곽묘 2. 47호:동혈식목곽묘 3. 半兩

전국시대 전기 무덤은 西向의 頭向이 대부분이고 중기 이후는 西向과 北向이 공존한다. 수혈식은 세장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장/폭의 비가 1.7-2:1에 속하는 세장형은 전국 전기, 장방형은 전국 중기 이후에 유행한다. 유물의 출토 위치는 수혈식의 경우 禮器와 生活 容器가 머리부분에 출토되는 반면, 동혈식은 龕室을 마련하여 부장하거나 피장자 옆에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기류나 장식품은 역시 피장자 양측면에서 출토된다.

보고자의 분기설정에 의하면 이 고분군은 모두 5기로 구분되며 제1기와 제2기는 수혈식이고 유물의 특징은 청동제품을 모방한 토기류가 주류를 이루면서 제1기는 채색토기가 주류인 반면 제2기는 채색토기가 감소한다. 제3기는 동혈식이 출현하며 채색토기는 극히 드물어진다. 제4기와 제5기는 동혈식이 주류를 차지하며 유물중 토기류는 缶(장군), 鏡, 鈇(네모난 솔) 등의 신기종이 등장한다. 특히, 제5기에는 半兩錢이 출토되고 鋸, 鑿, 鑽 등의 철제 공구류가 증가한다. 제1기는 春秋 後期, 제2기는 戰國 初期, 제3기는 戰國 中期, 제4기는 戰國 後期, 제5기는 秦代로 편년하고 있다.

4) 吳鏡峰·尙志儒, 「陝西鳳翔高庄秦墓地發掘簡報」, 『考古與文物』 1981-1.

2) 咸陽市 黃家溝 戰國時代 고분군⁵⁾

함양시의 동북방향으로 15km 떨어진 毛王村에 위치하고 있다. 1975년 초 32기, 1975년 가을부터 1977년 봄까지 50기의 전국시대 무덤이 발굴조사 되었는데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은 48기이다. 두향은 3기의 北向을 제외하고는 모두 西向이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수혈식목곽묘와 동실묘로 구분되는 동혈식 목곽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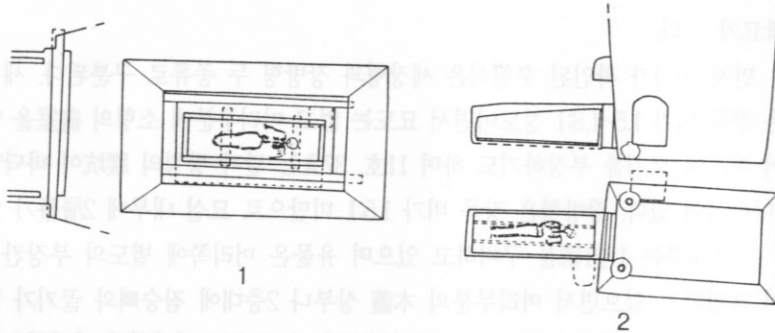
먼저 20기가 확인된 수혈식은 세장형과 장방형 두 종류로 구분된다. 세장형은 장폭 비가 1.5-1.8:1 정도이면서 묘도는 없고 머리부분에 소형의 龕室을 만들어 여기에 토기를 부장하기도 하며 11호, 37호는 말각 방형의 腰坑이 바닥면에 마련되어 있다. 장방형은 장폭 비가 1.5:1 미만으로 묘실 내부에 2層臺가 있다. 묘실 내부는 1棺1槨을 구비하고 있으며 유물은 머리쪽에 별도의 부장칸을 두어 매납하고 있으면서 머리부분의 木蓋 상부나 2층대에 짐승뼈와 골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동혈식은 28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도 세장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관곽의 구조를 살펴보면 목관은 前高後低의 형태이면서 평면이 長方形과 梯形 두 종류가 있다. 뚜껑은 반원상으로 둥근편이며 일반적으로 4개의 목판으로 모서리를 경사지게 만들었다. 피장자의 안치방법은 屈肢葬과 仰身直肢葬으로 구분되며 굴지장은 다시 仰身屈肢와 側身屈肢로 나누어지는데 관의 길이는 짧고 평면 梯形이다.

수혈식은 전체 조사된 무덤 중에서 굴지장이 12기로 60%를, 동혈식은 11기로 39%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 내부 바닥에 草木의灰가 한벌 깔려 있으며 인골의 양측에는 조그만 토기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습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인골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보고자는 이 고분군의 축조연대가 상기한 鳳翔縣의 제4기와 동일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전국 후기의 무덤에는 칠기류가 출토되는데 반해 수혈식에는 칠기류가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전국 후기보다 앞서는 전국 중기의 무덤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특징은 수혈식이 동혈식에 비해서 유물 출토량이 많은데 이것은 전국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유물의 매장풍습이 변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혈식에서 屈肢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가 동혈식으로 변화되면서 直肢葬으로 변화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양상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5) 「咸陽市黃家溝戰國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1982-6.

본 고분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혈식목곽묘는 전국시대 후기가 되면 동혈식목곽묘인 동실묘로의 묘제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혈식목곽묘에서 동혈식목곽묘로의 묘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적으로 서안의 반파지역 고분군을 들 수 있어⁶⁾ 묘제 변천에 참조된다.



도면 2. 咸陽市 黃家溝 고분군

1. 37호:수혈식목곽묘 2. 45호:동혈식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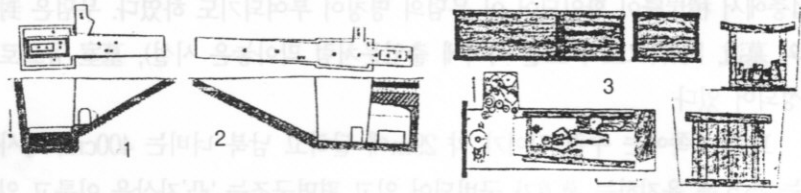
3) 臨潼 上焦村 秦代 고분군⁷⁾

秦始皇陵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陪葬墓 지역에서 확인된 8기의 秦代 무덤이다. 모두 경사진 墓道를 구비한 ‘凸’자상의 평면구조인데 역시 묘실의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된다. 묘실이 경사진 묘도와 나란하게 이어지는 것은 2기, 묘실을 별도의 洞室을 파서 만든 것은 6기가 확인되었다. 앞의 것은 경사진 묘도와 함께 묘실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파내려간 묘광에 묘실이 있는 수혈식을 말하는 것으로 17호의 예를 든다면 경사진 墓道와 함께 墓室, 龕室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혈식은 경사진 묘도와 수직되게 파 내려간 묘광의 아래쪽 단벽에 수평상의 구덩이를 파서 洞室을 마련하고 여기에 棺槨을 설치한 형태를 말한다.

6) 金學山, 『西安半坡的戰國墓葬』, 『考古學報』 1957-3.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모두 112기의 무덤을 조사한 중에서 수혈묘는 단지 11기에 불과하고 동혈묘는 101기에 달한다. 112기 모두 단인장으로 직지장과 굴지장의 피장자 안치방법이 확인되었는데 직지장은 겨우 5기에 불과하다. 직지장은 수혈식이 2기, 동혈식이 3기이다. 굴지장이 확인된 104기의 경우 9기가 수혈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혈식이다. 수혈식은 전국 전기, 동혈식은 전국 중기 이후 후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보고자는 편년하고 있다.

7) 秦俑考古隊, 『臨潼上焦村秦墓清理簡報』, 『考古與文物』 1980-2.



도면 3. 臨潼 上焦村 고분군

1. 17호:묘도有수혈식목곽묘 2. 18호:묘도有동혈식목곽묘 3. 18호 내부구조

내부에서 확인된 관곽의 크기를 보면 다른 무덤에 비해 크고 정교함을 알 수 있다. 동혈식인 18호는 곽이 길이 414cm, 너비 190cm, 높이 170cm에 달한다. 곽의 곁구는 길이 190cm, 너비 20cm-30cm, 두께 10cm 정도의 반원 상 판재 17개를 남북으로 바닥면에 깔고서 너비 20cm-80cm, 길이 394cm, 두께 10cm 정도의 板材 6개를 이용하여 가로로 쌓아 長壁을 만들고 길이 190cm, 너비 20cm-30cm, 두께 10cm의 판재 7개를 가로로 쌓아올려 短壁을 갖추었다. 槨蓋는 길이 190cm, 너비 20cm-48cm, 두께 10cm의 판재 15개를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내부 관은 길이 258cm, 너비 90cm, 높이 108cm 이면서 피장자는 仰身直肢로 두향은 西向이다. 유물은 金, 銀, 玉 등 귀금속으로 제작된 유물과 銅印 등이 출토된 것과 진시황릉 부근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秦始皇의 陪葬墓로 추정되어 피장자의 신분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군을 통해 秦代 귀족계급의 무덤에는 이미 墓道가 모두 구비된 豎穴式과 洞穴式木槨墓가 공존하고 있지만 동혈식목곽묘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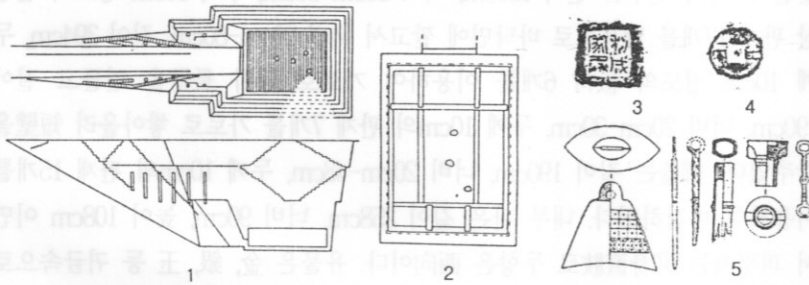
4) 新安 機磚廠 漢墓⁸⁾

서안시 동남쪽 靑龍寺 부근에 위치한 新安 벽돌공장의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대형무덤 1기이다. 비록 도굴을 당하였으나 騎馬武士俑을 비롯한 男女侍俑 등 陶俑과 '利成家丞'이라는 명문이 있는 封泥가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東園□□'이라는 銘이 肩部에 새겨진 토기가 출토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漢 劉氏 왕족과 관련이 있는 列侯級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봉토가 있었

8) 鄭洪春, 「陝西新安機磚廠漢初積炭墓發掘報告」, 『考古與文物』 1990-4.

지만 대규모 채취로 그 원형은 알 수 없고 일부 토층만 확인될 뿐이다. 토층의 제4층에서 積炭層이 확인되어 이 무덤의 명칭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무덤은 封土와 墓道, 門屏(묘도와 묘실 사이에 출입문처럼 막아놓은 시설), 墓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 북쪽에는 수평 길이가 약 29m에 달하고 남북 너비는 400cm, 경사도는 25.5°를 유지하는 墓道가 구비되어 있고 평면구조는 ‘凸’자상을 이루고 있다. 墓道와 접하고 있는 門屏은 500cm 길이의 수평 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한다면 墓道 길이는 30m가 넘고 깊이는 묘광 상부에서 12m, 현존하는 封墳에서는 18m에 이른다. 묘도 양측면에는 階段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도면 4. 新安 機磚廠 한묘

1. 평면 및 단면도 2. 묘실 평면도 3. 封泥 4. 半兩 5. 출토유물 각종

묘실은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1010cm, 동서 너비 825cm, 바닥면은 중간이 약간 높고 가장자리가 낮은 형태로 26cm의 격차가 있다. 棺槨의 형태 역시 장방형으로 길이 990cm, 너비 720cm로 내부에는 관이 중앙에 위치하고 나머지 둘레에 隔壁을 두어 별도의 유물칸을 마련하였다. 관이 있었던 공간은 길이 550cm, 너비 300cm이지만 도굴로 인해 몇 층의 관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물중 편년에 참조되는 것으로 半兩錢이 묘도에서 1점 출토되었으나 五銖錢은 출토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무덤은 적어도 五銖錢이 제작된 시기인 漢武帝 元狩 5年(B.C.118) 보다는 그 축조시기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封泥의 ‘利成家承’이라는 명문으로 武帝代 利鄉 劉嬰이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으며, ‘東園□□’의 ‘東園’이 漢 王室의 부장품 專門工房이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⁹⁾

상기 무덤을 통해 확인된 것은 대형무덤인 경우 서한 전기에 묘도가 구비된 목곽묘가 축조되고 있었다는 것과 도굴의 피해로 확실치 않지만 부장품에 동전이 많지 않으며 陶俑이나 漆器類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西安 三店村 漢墓¹⁰⁾

서안시 동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본 무덤은 지표하 10m 지점에서 묘실이 확인되었다. 묘실은 정방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760cm로 곽의 둘레에 60cm-70cm 두께의 목탄층이 확인되었다. 묘도가 구비되지 않은 수혈식목곽묘로 내부 교란이 심하여 관곽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내부유물 가운데 편년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半兩錢과 五銖錢이 출토되었는데 우선 반량전의 경우 2점이 출토되었으며 직경 5cm, 두께 0.5cm, 무게 80g으로 대형이다. 武帝代 四銖半兩의 글자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무게는 25배나 무겁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동전은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장용으로 별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五銖錢은 1점이 출토되었는데 직경 2.5cm, 무게 4g이며 方形의 透孔에 橫線이 없고 ‘五’자의 직선상에 가까운 만곡도, ‘銖’의 ‘朱’자가 곡선상의 정도가 약한 점, ‘金’의 경우 ‘朱’자에 비해 약간 작고 상부가 삼각상을 이루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昭帝와 宣帝代에 제작된 초기 오수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은 서한 중기에 조영된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경우 서한 중기에 해당하는 무덤이지만 드물게 보이는 수혈식 목곽묘로서 묘실 규모를 감안한다면 중대형급 무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한 중기에도 중대형급의 무덤에서는 수혈식목곽묘가 여전히 채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6) 西安 方新村 漢代 高분군¹¹⁾

서안시 북쪽 외곽지역인 方新村的 龍首村 軍刊所 건설공사시 확인된 한대

9) 『漢書』 霍光傳, “霍光薨……東園溫明, 皆如乘輿制度”

10) 朱捷元·李域錡, 「西安東郊三店村西漢墓」, 『考古與文物』 19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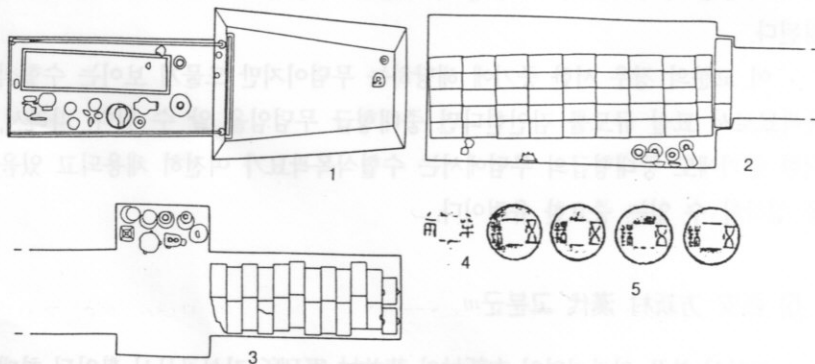
11) 張達宏·王九剛·程林泉, 「西安北郊龍首村軍刊所漢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 1992-6.

고분군으로 모두 16기가 조사되었다.

여기서 조사된 무덤은 수혈식목곽묘, 동혈식목곽묘, 묘도가 있는 동혈식목곽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수혈식목곽묘로 2기가 확인되었는데 동서축과 남북축이 각각 1기로 장축방향에서 일률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15호는 묘실 내부에 1관1곽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물 중 반량전이 9점 출토되었고 16호는 묘실 바닥에 목탄을 깔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은 동혈식목곽묘로 8기가 확인되었는데 수혈 묘광이 동혈의 묘실에 비하여 너비가 큰 것(A식)과 수혈 묘광이 동혈 묘실의 너비와 동일한 것(B식), 수혈 묘광이 동혈 묘실에 비해 좁은 것(C식)으로 세분된다. A식의 경우 2기가 확인되었는데 동혈의 묘실이 수혈 묘광의 동쪽에 구비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묘광과 묘실 사이에 封門이 마련되기도 한다. B식은 동혈 묘실이 묘광의 서쪽에 있는 것이 1기, 동쪽에 있는 것이 4기 확인되었다. C식은 평면 형태가 '凸'자상으로 묘도가 동혈 묘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사진 묘도를 가진 동혈식목곽묘로 6기가 있다. 이 역시 묘도의 너비가 묘실에 비해 작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묘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묘도가 묘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1기, 동쪽에 있는 것은 3기, 서쪽에 있는 것은 1기 등 묘도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묘도와 묘실 사이에 磚으로 만든 封門을 두어 일종의 甬道와 유사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거나 묘실 좌우 벽에 龕室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묘도와 묘실의 너비가 동일한



도면 5. 方新村 고분군

1. 14호:동혈식목곽묘 2. 4호:동혈식목곽묘
3. 7호:묘도有동혈식목곽묘 4. 半兩 5. 五銖

것은 1기가 있는데 묘도는 묘실의 북쪽에 있다. 2호의 경우 오수전이 5점 출토되었다.

이들 무덤은 모두 仰身直肢로 수혈식목곽묘는 내부에 관과 아울러 곽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무덤은 鐵釘을 이용한 관의 존재만 확인되어 관 곽의 사용이 묘제의 형태변화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덤구조에 따라 출토유물의 특징도 차이가 있으며 시기적으로 분기된다. 제1기의 경우 수혈식목곽묘와 동혈식목곽묘가 축조되는 시기로 묘광은 사다리꼴모양을 띠고 있다. 내부 유물은 반량전이 있으나 오수전은 출토되지 않고 있어 그 시기는 文帝나 武帝 초에 해당될 수 있다. 제2기는 수혈식목곽묘가 사라지고 동혈식목곽묘에서도 묘광이 梯形에서 長方形으로 형태가 변화된다. 그리고 경사진 묘도를 가진 동혈식목곽묘도 이 시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출토된 오수전의 특징을 미루어 보아 武帝에서 宣帝시기로 추정된다. 제3기의 경우 경사진 묘도를 가진 동혈식목곽묘가 위주 이면서 日光鏡과 王莽시대나 東漢시대의 동전이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보다 앞선 시기인 서한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자는 편년하고 있다.

이 고분군에서 알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 수혈식목곽묘에서 동혈식목곽묘로의 변화과정과 아울러 동혈식목곽묘에서도 묘도의 형태 변화에 따라 시기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혈식목곽묘→동혈식목곽묘(서한 전기)→묘도동혈식목곽묘(서한 중기)로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3. 낙양지역

하남성에 위치한 洛陽은 光武帝가 기원 25년 漢을 재건하고서 首都로 定都한 후 200여 년간 西安에 이어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낙양은 중국이 해방 후 가장 일찍 고고학적인 학술활동을 중점적으로 시작하였던 지역 중 하나로 1953년 225기의 漢代 무덤이 확인 조사된 洛陽燒溝漢墓는 너무나도 유명하다.¹²⁾ 그리고 1955년 潤西區에서 80여기의 한

12) ① 王仲殊, 「洛陽燒溝附近的戰國墓葬」, 『考古學報』 第8冊, 1954.

②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洛陽燒溝漢墓』, 科學出版社, 1959.

그 외에도 이 지역에서 1957년에서 1959년 사이에 발굴을 진행하여 약보고서가 발간되어

대 무덤을 조사되었고¹³⁾, 1957-1958년 金谷圓과 七里河에서 217기의 무덤이 발굴조사되는¹⁴⁾ 등 약 900여기의 무덤이 50년대의 발굴조사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30여년간은 50년대와 같은 대규모의 발굴성과가 없이 소규모로 일부 유적에서만 국한된 조사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낙양지역의 한대무덤은 燒溝 漢墓의 발굴성과가 기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한대무덤의 標識的 자료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1) 洛陽 燒溝 漢代 고분군¹⁵⁾

1953년 洛陽市 文化區의 校舍 3개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에서 발굴조사된 漢代 고분군지역이다. 이곳은 낙양시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北邙山의 남쪽 사면 아래에 해당되는 북망산의 낮은 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구역을 모두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1953년 7월부터 1954년 9월까지 모두 225기를 발굴조사 하였다. 묘역의 전체적인 확대방향은 동에서 서로 배치되다가 東漢 후기가 되면 다시 동쪽으로 배치되어 혼재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 고분군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조성되었고 魏晉시대의 무덤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대에 조성된 고분들간에는 묘실 뿐 아니라 묘도의 중복 내지는 파괴가 보이지 않아 외부에 무덤간의 표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확인 조사된 한대의 무덤은 모두 동혈식목곽묘이다. 다만 燒溝의 부근에서 확인된 전국시대의 무덤에서는 수혈묘와 동혈식목곽묘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서는 수혈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⁶⁾ 이를 통해 볼때 燒溝지

있다.

(1) 『洛陽老城西北郊81號漢墓』, 『考古』 1964-8. (2) 『洛陽燒溝清理西漢墓葬』, 『文物』 1959-9.)

13) ① 『洛陽潤西16工區發掘簡報』, 『考古』 1964-8.

② 『1955年洛陽潤西區小型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59-2.

14) 『洛陽西郊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3-2. 이후 10여 년이 지나 1972년 이곳에서 다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 내용이 발표되어 있다. (『洛陽金谷圓車站1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83-4.)

15)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洛陽燒溝漢墓』, 科學出版社,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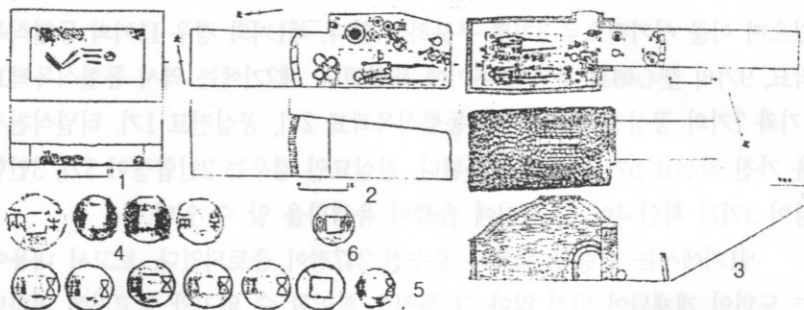
16) 王仲殊, 『洛陽燒溝附近的戰國墓葬』, 『考古學報』 第8冊, 1954.

이 조사내용에 의하면 모두 59기의 전국시대 후기의 무덤이 확인조사 되었다. 수혈식목곽묘는 43기(73%)를, 동혈식목곽묘는 16기(27%)이며 피장자의 안치는 굴지장이 위주를 이루고 있다. 보고자는 당시 조사유적을 수혈식목곽묘의 가장 마지막 단계 시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벽에 龕室을 갖추고 목곽이 점차 퇴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내부구조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묘실 벽에 일정한 단을 두고 이곳에 목재

역에서는 漢代에 이미 수혈식목곽묘는 동혈식목곽묘로 묘제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비록 전형적인 수혈식목곽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兩漢시대의 편년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지금까지 한대 고분의 연대설정 기준이 되고 있다.

2) 新鄉 五陵村 戰國·漢代 고분군¹⁷⁾

1965년 新鄉市の 동북 외곽지역에 위치한 五陵村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50여기의 무덤을 발굴한 후 다시 1985년 137기의 戰國시대에서 東漢시대에 걸쳐 조성된 무덤을 조사하였다. 137기의 무덤 중에서 수혈식목곽묘 7기, 동혈식목곽묘 106기, 磚室墓 24기로 나누어진다.



도면 6. 新鄉 五陵村 고분군

1. 7호:수혈식목곽묘 2. 49호:묘도에동혈식목곽묘
3. 112호:전실묘 4. 半兩 5. 五銖 6. 貨泉

수혈식목곽묘는 내부의 관곽 형태가 분명하지 않아 토광묘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적인 규모도 길이 220cm-380cm, 너비 130cm-250cm에 불과한 소형이다. 피장자의 안치방법은 仰身屈肢가 대부분이다. 7호의 경우 길이 310cm, 너비 190cm로 내부에는 2층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두향은 동향이다. 2호는 길이 270cm, 너비 80cm 규모로 소형에 속하며 머리쪽인 서쪽에 龕室을 두고 여

를 횡가하여 걸쳐서 木蓋를 덮는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동혈식목곽묘는 경사나 계단상의 묘도가 아직 구비되지 않고 있으며 동혈식목곽묘의 내부구조가 수혈식목곽묘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왕중수의 조사구역에서는 전국시대 후기에 수혈식목곽묘에서 동혈식목곽묘로의 묘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17) 新鄉市博物館, 「河南新鄉五陵村戰國兩漢墓」, 『考古學報』1990-1.

기에 유물을 부장하였다.

보고자에 의하면 이 고분군은 모두 4단계로 편년을 구분 짓고 수혈식은 제1기인 전국시대 중만기에 편년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혈식목곽묘는 서한시대, 전실묘는 동한시대로 편년하고 있다.

이 고분군의 조사결과, 전국시대에는 수혈식으로 피장자는 여전히 굴지장이다. 그러나, 서한시대에 들어오면 소형무덤도 수혈식목곽묘에서 동혈식목곽묘로 변화되거나 전실묘라는 새로운 묘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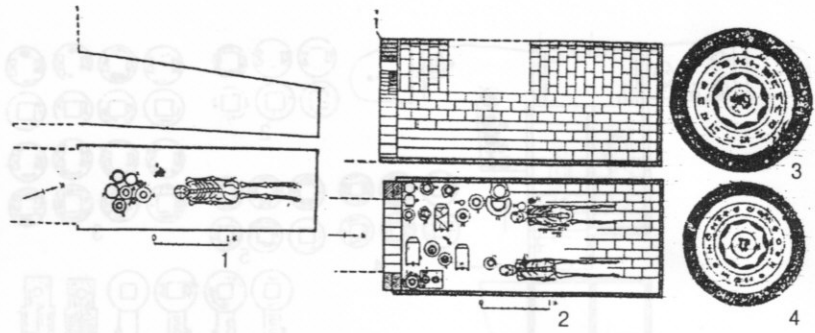
3) 新安 鐵門鎮 戰國·漢代 고분군¹⁸⁾

하남성 新安縣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鐵門鎮의 ‘鳳凰山’으로 불리우는 대지상에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모두 36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시기적으로 3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의 경우 11기의 동혈식목곽묘, 9기의 空心磚墓 무덤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기에는 역시 동혈식목곽묘 1기와 7기의 공심전묘, 제3기는 동혈식목곽묘 2기, 공심전묘 1기, 터널식천정을 가진 전실묘 5기 등으로 구분된다. 전실묘인 경우는 2인합장이 3기, 3인합장이 3기가 확인되어 이 시기에 습葬이 유행함을 알 수 있다.

제1기에서는 반량전 44점과 오수전 247점이 출토되었다. 보고서 내용에는 도면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보고자에 의하면 반량전의 경우는 秦代에 주조된 반량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전국시대 후기에서 서한시대 전기로 편년하고 있다. 제2기의 경우 반량전은 전혀 출토되지 않고 오수전이 5기의 고분에서 109점이 확인되었으며 그 직경이 2.4cm에서 7.55cm에 이르는데 직경이 큰 오수전의 경우는 부장용으로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자는 이 시기를 서한 중기로 보고 있다. 제3기는 5기의 고분에서 오수전이 790점이, ‘大泉五十’도 13호의 무덤에서 108점이 출토되어 동전의 매납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서한 후기에서 동한 전기에 해당된다.

이 고분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국시대 후기에 들어오면 수혈식은 사라지고 동혈식목곽묘가 채용되고 이는 다시 공심전묘와 터널식의 천정구조를 가진 전실묘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실묘일 경우에는 습葬

18)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南新安鐵門鎮西漢墓葬發掘報告」, 『考古學報』 1959-2.



도면 7. 新安 鐵門鎮 고분군

1. 12호:동혈식목곽묘 2. 10호:전실묘 3. 昭明鏡 4. 日光鏡

이 출현하고 있으며 동전의 매납량이 서한대에 들어오면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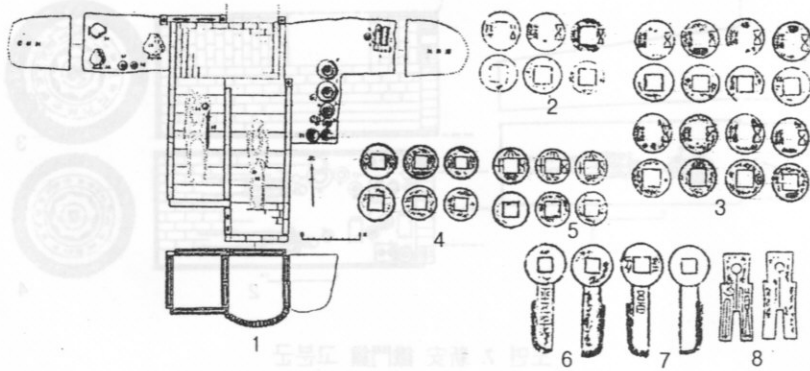
4) 洛陽市 金谷園·七里河 漢代 고분군¹⁹⁾

洛陽 西郊 漢墓로 잘 알려진 이 고분군은 1957년부터 58년까지 낙양시 서쪽 외곽지대인 金谷園과 七里河에서 한대 무덤을 비롯해 西周시대부터 宋代에 이르는 약 400여기의 무덤을 발굴조사 하였다. 특히, 금곡원에서 한대 무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는데 동북으로 1km 떨어진 지점이 燒溝漢墓지역으로 이 부근이 한대 분묘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서 조사된 217기의 한대 무덤 중에서 금곡원에서 126기, 칠리하에서 91기가 확인되었다.

보고자에 의하면 이 고분군에서 조사된 무덤은 모두 5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시기구분을 시도하였는데 수혈식목곽묘의 경우는 제1유형에 속한다. 피장자는 양신직지이고 묘실이 單室과 雙室로 구분되며 쌍실인 경우는 묘도가 구비된다. 나머지 유형에서는 空心磚墓와 磚室墓로 세분되어 있다. 제1유형의 경우는 대부분 武帝나 昭·宣帝대에 제작된 오수전과 반량전도 일부 출토되었다. 그리고 동경은 일광경과 소명경이 주류를 이루면서 성운문경도 출토되어 그 축조시기가 서한 중기에 편년됨을 알 수 있다.

이 고분군의 성격은 일반 평민보다는 신분적으로 다소 우위에 있는 하급

19)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發掘隊, 「洛陽西郊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3-2.



도면 8. 金谷園·七里河 고분군

1. 3119호:空心磚墓 2. 宣帝五銖 3. 東漢五銖 4. 貨泉
5. 大泉五十 6. 一刀平五千 7. 契刀五百 8. 布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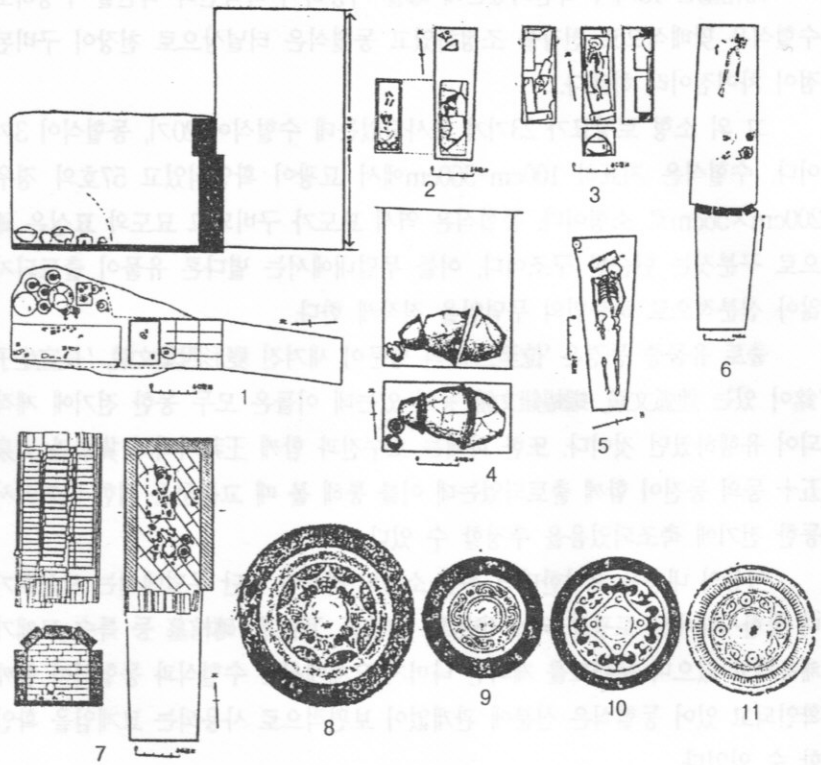
관료계급의 무덤들로 이해하고 있다. 이 고분군의 가장 빠른 시기인 서한 중기에 수혈식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토광묘의 경우 동혈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동일시기의 공심전묘나 전실묘의 영향을 받아 천정구조가 터널식 또는 궁륭상으로 축조되고 단실묘에서 耳室을 갖춘 쌍실묘로 내부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洛陽 澗西區 漢代 小型墓群²⁰⁾

1955년 낙양시 澗河의 서쪽지구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漢代 무덤을 비롯한 北朝시대와 隋·唐代, 宋代 무덤 1,000여기를 확인하였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중대형 무덤은 燒溝 漢墓 및 상기한 지역과 별 차이가 없고 다만 陶棺墓, 甕棺墓, 瓦棺墓, 磚棺墓 등이 주류를 이루는 70기의 소형무덤이 다른 곳에서 조사된 바가 없어 그 조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陶棺墓는 모두 10기가 조사되었는데 당시 지면에서 100cm 전후의 깊이에서 묘광선이 확인되었다. 도관묘는 甕棺墓와 瓦棺墓와 달리 土製品의 사각관의 형태를 만든 것으로 수혈식과 동혈식 두 종류가 있다. 수혈식은 3기, 동혈식은 7기가 있는데 동혈식은 묘도가 마련되어 있고 耳室이 묘실에 구비되어 있지만 수

20)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一九五五年洛陽澗西區小型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59-2.



도면 9. 澗西區 소형묘군

1. 9호: 동혈식陶棺墓 2. 4호: 수혈식陶棺墓 3. 瓦棺墓 4. 甕棺墓
 5. 수혈식토광묘 6. 동혈식토광묘 7. 磚棺墓 8. 長宜生子鏡
 9. 四乳四螭文鏡 10. 蝙蝠鈕文鏡 11. 四螭文鏡

혈식은 묘도가 없이 수혈 묘광에 그대로 묘실이 마련되어 있다. 내부에서 수습된 인골의 치아를 감정해 본 결과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으며 單人의 直肢葬이다.

甕棺墓는 14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수혈식으로甕이나 盆을 1-3개를 맞대어 관으로 이용한 것이다. 용관 내부에는 五銖錢과 貨泉, 半兩 및 大泉五十와 같은 동전이 함께 출토되어 편년에 참조된다.

瓦棺墓는 10기가 확인되었는데 평기와 여러개를 깔아 관으로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수혈식과 동혈식 두 종류가 있다. 수혈식은 8기로 장방형 수혈 묘광에 평기와를 깔고 묘실을 구비하였는데 墓道와 耳室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동혈식은 2기로 묘도가 구비되어 있다.

磚棺墓는 13기가 확인되었는데 磚을 이용하여 바닥면과 벽면을 구성하고 수혈식은 맞배식으로 천장을 조정하였고 동혈식은 터널상으로 천장이 구비된 점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 외 소형 토광묘가 23기가 조사되었는데 수혈식이 20기, 동혈식이 3기이다. 수혈식은 지표하 100cm-360cm에서 묘광이 확인되었고 57호의 경우 200cm×56cm로 소형이다. 동혈식은 역시 묘도가 구비되고 묘도와 묘실은 磚으로 구분짓는 단순한 구조이다. 이들 무덤내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신분적으로 하층민의 무덤임을 짐작케 한다.

출토 유물중 동경은 '位至三公'의 명문이 새겨진 變形四葉文鏡, '長宜生子' 銘이 있는 連弧文鏡, 蝙蝠紐文鏡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한 전기에 제작되어 유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화폐는 오수전과 함께 王莽시대의 貨泉과 大泉五十 등의 동전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고분군은 서한 말기에서 동한 전기에 축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우선 소형의 하층민 집단 무덤에서는 서한후기나 동한시대에도 토광묘 외에 甕棺墓, 陶棺墓, 瓦棺墓, 磚棺墓 등 특수 묘제가 채용되고 있으며 옹관묘를 제외한 나머지 묘제에서는 수혈식과 동혈식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동혈식은 신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묘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목곽묘의 특징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서안·낙양지역 목곽묘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고대문헌의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밝혀진 목곽묘에서의 棺과 槨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짓고 정리하려고 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목관묘와 목곽묘와의 개념설정에서 혼돈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개념을 확실히 정의하기 위함이다.

중국 고대에서는 棺과 槨을 서로 병칭하여 양자를 모두 葬具로 분류하여 왔음을 문헌상 확인되는데 『孟子』梁惠王下에 “謂棺槨衣衾之美也.(관곽이라는 것은 옷, 이불과 같이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한다)”, 『韓非子』內儲上에 “齊國好厚葬, 布帛盡于衣衾, 材木盡于棺槨.(제나라는 후장을 좋아하여 포와 비단으로(죽은 사람의) 옷과 이불을 만들고 목재로 관과 곱을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관과 곽이 의미하고 있는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 상 서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說文』木部に “棺, 關也, 所以掩尸.(관은 가두는 것으로 시체를 감추는 것이다)”라 하고 『墨子』節葬下에는 “棺三寸, 足以朽體.(관은 3촌으로 시체를 썩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여 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관은 각 층마다 명칭이 다른데 『禮記』檀弓에 鄭玄의 注에 의하면 밖에서 안쪽으로 그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다. 가장 외부에 있는 관을 ‘大棺’, 제2층관은 ‘屬’, 제3층관을 ‘槨(비)’ 혹은 ‘柩(이)’라고 부르며 가장 안쪽의 내관 또는 그 다음 관을 ‘革棺’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3층관일 경우 내관은 바로 ‘槨’ 혹은 ‘柩’가 되며 ‘革棺’은 없다. 또한 2층관일 경우 내관은 ‘屬’이 되며 ‘革棺’과 ‘槨棺’은 없다. 1층관일 경우에는 ‘大棺’만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大棺’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는 내관, 외관의 개념이 없는 단관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里棺’이라고 부른다.

다음 槨은 『禮記』檀弓上에 “槨周于棺.(곽은 관을 두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곽을 정의하고 있으며 『說文』卷六 上에는 “槨, 葬有木郭也.(곽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나무둘레가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段玉裁의 注에는 “木郭者, 以木爲之, 周于棺, 如城之有郭也.(나무로 둘렀다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 관에 두른 것으로 마치 城에 둘레를 이룬 것과 같다)”라고 하여 그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胡培暉의 『儀禮正義』卷二十八에 “蓋槨周于棺, 其形方, 又空其中, 以俟下棺有似于井, 故云井槨.(대개 곽이라는 것은 관에 두른 것으로 그 형태는 방형이며 또한 공간이 그 사이에 있고 바로 그 아래에 관이 있는데 (모양이)우물과 비슷하여 정 곽이라고 부른다)”라고 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목곽묘에서 곽재로 사용되는 나무로는 松, 柏, 雜木 등이 있다. 『禮記』喪大記에 의하면, “君松槨, 大夫柏槨, 士雜木槨.(군은 송곽, 대부는 백곽, 사는 일반목곽)”으로 신분에 따라 그 채용하는 재료도 구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儀禮正義』에서 말하는 ‘井槨’이라는 것은 湖南省 江陵 鳳凰山 167, 168호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곽의 내부에 頭箱, 邊箱, 棺箱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²¹⁾, 湖南省 長沙 砂

21) ① 紀烈敏, 「鳳凰山167號墓所見漢初地主階級葬俗」, 『文物』 1976-10.

② 長江流域第二期文物考古工作人員訓練班, 「湖北江陵鳳凰山西漢墓發掘簡報」, 『文物』 1974-6.

③ 紀南省鳳凰山168號漢墓發掘整理組, 「湖北江陵鳳凰山168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75-9.

④ 鳳凰山167號漢墓發掘整理小組, 「江陵鳳凰山167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76-10.

子塘 1호묘와²²⁾ 馬王堆 1호묘는²³⁾ 頭箱, 左邊箱, 右邊箱, 足箱과 棺箱 등이 갖추어진 '井槨'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루고 있다.

따라서, 槨은 그 내부에 반드시 棺이 있는 무덤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無棺有槨이라는 표현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으며 관곽의 개념설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그런데, 목곽묘에서 목곽은 실제적으로 묘실내의 구조로서 피장자를 안치하고 있는 관 이외에도 피장자의 死後세계에 사용할 각종 유물을 함께 부장하고서 生前의 생활과 다름없도록 구조를 갖추고 있는 幽宅이라는 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나 일반적으로 곽이라고 부른다.²⁴⁾

西漢 전기와 중기의 관곽 개념은 周代의 禮制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禮記·檀弓』에는 “天子之棺四重(천자의 관은 4중이다).”이라 하고 鄭玄의 注에는 “諸公三重, 諸侯再重, 大夫一重, 士不重(제

22) 湖南省博物館, 「長沙砂子塘西漢墓發掘簡報」, 『文物』1963-2.

23) ① 史爲, 「馬王堆1號漢墓的棺槨制度」, 『考古』19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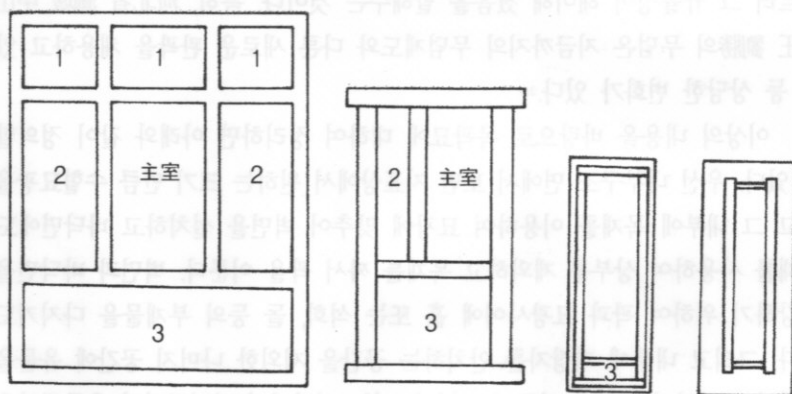
② 俞偉超, 「馬王堆1號漢墓棺制的推定」, 『湖南考古輯刊』第1集, 1982.

頭箱은 피장자의 머리부분에 유물칸을 마련한 공간이고 邊箱 또는 側箱은 피장자의 좌우 측에 유물칸을 마련한 공간을 말하는데 피장자의 좌우에 따라 左邊箱, 右邊箱이라고 나누어서 부르기도 한다. 足箱은 피장자의 발치 쪽에 마련한 유물칸이며 棺箱은 棺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24) 그 이유는 피장자가 死後에 거처할 곳이라는 개념인 '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室은 집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로써 집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해야만 용어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기거하는 방, 집을 드나 들기위한 시설인 문, 그리고 이러한 내부시설을 보호하는 지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 대문, 지붕이 최소한 갖추어지고 나서야 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死後에 거처하는 幽宅인 무덤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집의 기본 요소인 방, 출입문, 지붕 등을 완전히 구비한 경우야말로 '室'이라는 용어를 명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혈식목곽묘의 경우 지붕과 문이 없는 상태에서 피장자를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 집의 시설이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거나 시설 일부를 파괴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반면, 羨道가 갖추어진 횡혈식무덤의 경우 지붕인 천정과 내부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진 길을 따라 문을 거쳐서 피장자가 안치할 공간인 主室의 棺臺에 두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室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벽돌로 쌓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무덤을 磚室墓라고 부르며 돌로 만든 경우는 石室墓라고 명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西周시대의 엄청나게 큰 대형무덤임에도 木室墓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室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大型木槨墓라고만 부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의 경우에도 그 무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일 경우 석실묘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 대로 수혈식 무덤에서는 室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곽묘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며 횡혈식이나 횡구식은 석실묘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은 3중, 제후는 2중, 대부는 1중, 사는 중복하지 않는다.”이라고 되어 있고, 『荀子』禮論에는 “天子棺槨七重, 諸侯五重, 大夫三重, 士再重(천자의 관곽은 7중, 제후는 5중, 대부는 3중, 사는 2중)”으로 기록되어 있다. 『禮記』에서 말하는 ‘重’은 내관의 수를 기본으로 하여 내관의 외부에 다시 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즉, ‘一重’이라는 것은 내관에 한 층을 더한 것을 의미하여 내관과 함께 2층을 하고 있는 것이다. 『荀子』에서 말하는 ‘重’은 ‘層’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관과 곽의 수를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禮記』의 관층수에 근거하여 戰國시대 楚나라의 무덤에서 조사된 관곽수를 참조해 보면 『荀子』에서 말한 관곽 층수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천자는 5관2곽을 사용하고, 제후는 4관1곽 또는 3관2곽을, 대부는 2관1곽이며, 사는 1관1곽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禮記』와 『荀子』의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면 諸公의 관곽 층수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⁵⁾



도면 10. 목곽묘에서의 유물칸 명칭도 (1.頭箱 2.邊箱 3.足箱)

지금까지 조사된 한대 목곽묘의 관곽을 살펴보면 당시의 관곽제도가 문헌에 기록된 것과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다. 먼저 長沙馬王堆 1호는 軟侯 利蒼 부인의 무덤으로 당시는 부부가 동일한 신분제도에 적용된다고 볼 때 그 관곽의 규모는 제후에 해당하는 4관1곽이다. 江陵 鳳凰山 168호 漢墓는 소위 ‘五大夫’의 관직을 가진 遂少言의 무덤으로 그의 작위는 漢 20等爵 중에서 9등작에 속하는 것으로 8등작인 ‘公乘’ 이하의 ‘民爵’으로 縣令에 상당하는 신분이었는 데 이 무덤의 구조는 2관1곽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

25) 李玉洁, 『先秦喪葬制度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991.

기 두 기의 무덤은 기본적으로 문헌에 기록된 관곽제도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北京 大葆台 1호 한묘는 燕諸侯國 王의 무덤으로 5관2곽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列侯'에 비해 1등작이 높은 것으로 천자의 '관곽7중'에 해당하는 관곽을 채용하고 있다. 제후가 천자의 제도를 사용한 것은 周代에서도 이미 발생된 것으로 前漢의 列侯王이 천자의 관곽제도를 사용한 것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특히 그는 황제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였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제도가 신분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마왕퇴 2호 軹侯 利蒼 본인의 무덤은 단지 2관1곽만이 채용되었다. 또한 長沙 象鼻嘴 1호는 長沙의 恭王 吳右 혹은 靖王 吳著의 무덤으로 추정되며,²⁶⁾ 陔壁山 漢墓 역시 靖王의 王后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모두 3층관을 사용하고 있다.²⁷⁾ 즉, 한대의 列侯나 諸侯의 무덤에는 2층에서부터 5층에 이르는 관곽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周代에서 있어 왔던 관곽제도가 한대에 이르러 그 규율성이 해이해 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河北省 滿城 中山 靖王 劉勝의 무덤은 지금까지의 무덤제도와 다른 새로운 관곽을 채용하고 있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다.²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곽묘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우선 내부구조 면에서 보면 지표상에서 원하는 크기 만큼 수혈묘곽을 파고 그 내부에 목재를 이용하여 묘곽에 맞추어 벽면을 설치하고 바닥면에도 목재를 사용하여 상부를 제외하고 목재를 짜서 곽을 이룬다. 벽면과 바닥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곽과 묘곽사이에 흙 또는 석회, 돌 등의 부재물을 다지기도 한다. 그리고 내부에 피장자를 안치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기 위하여 隔壁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피장자의 안치공간과 유물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되며 유물칸의 공간은 피장자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곽내부 위치에 따라 유물칸의 명칭을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피장자를 감싸고 있는 棺이 槨에 안치되는데 위치는 규모

26) 湖南省博物館, 「長沙象鼻嘴1號西漢墓」, 『考古學報』1981-1.

27) 長沙市文化局文物組, 「長沙咸家湖西漢曹饌墓」, 『文物』1979-3.

2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滿城漢墓發掘報告』, 文物出版社, 1980.

이 무덤은 河北省 滿城縣에 위치하고 있는데 漢 諸侯國의 하나인 中山國王의 무덤으로 산 중턱에 인공으로 동굴을 파서 만든 崖墓이다. 인공 동굴의 전체길이는 51.7m, 최대 너비 37.5m, 최고 높이 6.8m로 총면적은 2,700m²에 달한다. 무덤은 墓道, 甬道, 南耳室, 北耳室, 中室, 後室 등 6개부분으로 나누어진다. 靖王 劉勝은 景帝 前元3年(B.C.154)에서 元鼎4年(B.C.113) 2월 사망할 때까지 42년간 중산국왕에 재위하였다. 여기서 유명한 金縷玉衣가 출토되는 등 서한대의 풍부하고 화려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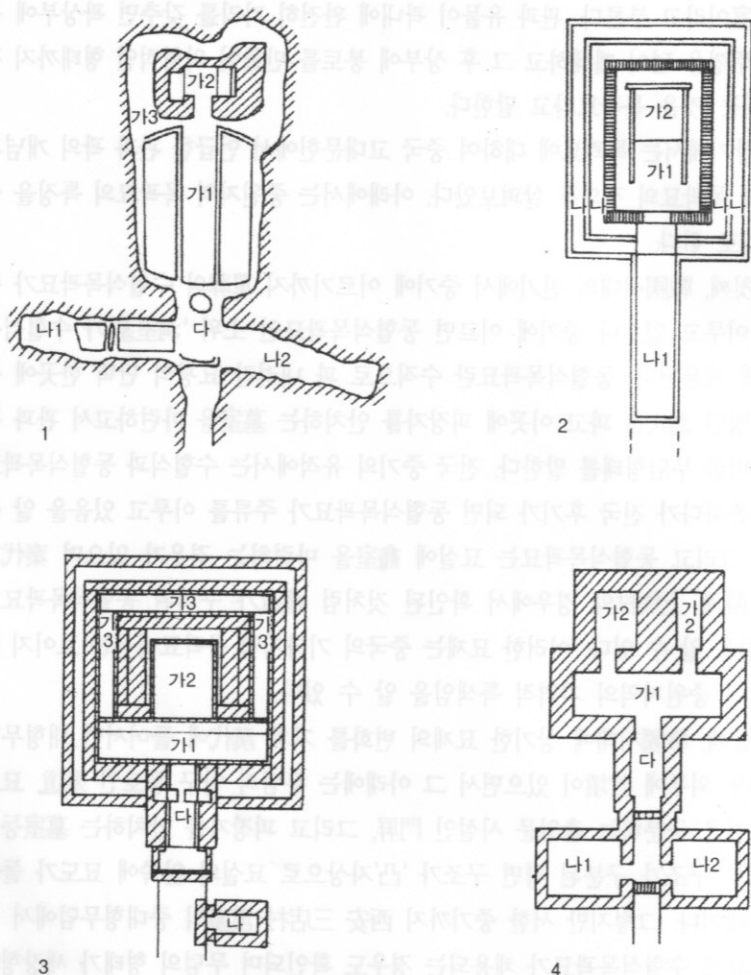
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관이 안치되는 곳을 다른 유물칸과 구별짓기 위해 主室이라고 부른다. 관과 유물이 관내에 완전히 자리를 갖추면 관상부에 목재의 뚜껑을 덮어 폐쇄하고 그 후 상부에 봉토를 만들어 외형적인 형태까지 갖추어지는 것을 목곽묘라고 말한다.

상기에서는 목곽묘에 대하여 중국 고대문헌에서 언급한 관과 곽의 개념과 아울러 목곽묘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중원지역 목곽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戰國시대의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單葬의 수혈식목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중기에 이르면 동혈식목곽묘인 소위 ‘洞室墓’가 수혈식목곽묘에 채용된다. 동혈식목곽묘란 수직으로 파 내려간 묘광의 단벽 한곳에 수평 구멍인 洞穴을 파고 이곳에 피장자를 안치하는 墓室을 마련하고서 관과 곽을 구비한 무덤형태를 말한다. 전국 중기의 유적에서는 수혈식과 동혈식목곽묘가 공존하다가 전국 후기가 되면 동혈식목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혈식목곽묘는 묘실에 龕室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며 秦代가 되면 臨潼 上焦村의 경우에서 확인된 것처럼 墓道가 구비된 동혈식목곽묘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묘제는 중국의 기타지역 목곽묘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어 중원지역의 지역적 특색임을 알 수 있다.

둘째, 戰國시대에 상기한 묘제의 변화를 거쳐 漢代에 들어서면 대형무덤의 경우 외부에 封墳이 있으면서 그 아래에는 무덤의 입구 통로인 墓道, 묘도와 묘실을 구분하는 출입문 시설인 門屏, 그리고 피장자를 안치하는 墓室등으로 내부 구조가 구분된 평면 구조가 ‘凸’자상으로 묘실의 앞쪽에 묘도가 돌출된 형태이다. 그렇지만 서한 중기까지 西安 三店村 漢墓의 중대형무덤에서 처럼 드물게 수혈식목곽묘가 채용되는 경우도 확인되며 무덤의 형태가 세장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된다. 또한 서한 중기에 이르면 묘실의 한쪽 벽면에 묘도가 마련되어 피장자를 안치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 追加葬이 시행되게 되었다.²⁹⁾ 합장묘가 채용되는 서한 중기 이후에는 세장형의 구조는

29) 묘도가 구비된 것은 商周시대의 대형 귀족무덤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다. ① 『殷墟婦好墓』, 文物出版社, 1981. ② 『1953年安陽大司空村發掘報告』, 『考古學報』 第9輯, 1955. ③ 『殷墟的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1994. 등에서 商代의 墓道가 있는 대형무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④ 『陝西省寶鷄市茹家庄西周發掘簡報』, 『文物』1976-4. ⑤ 山西省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學系, 『天馬-曲村遺址北趙晉侯墓制3次發掘』, 『文物』1994-8. 등에서 周代의 묘도가 구비된 대형무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墓道의 채용은 일부 귀족의 대형무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 戰國시대 중기 이후 關中지역에서부터 소형의 목곽묘에서도 채용되기 시작한다.



도면 11. 한대 무덤의 내부 배치도

1. 滿城 陵山 1호 2. 北京 大葆台 1호 3. 定縣 北庄墓 4. 定縣 北陵頭 43호
 (가:主室, 가1:明室, 가2:後室, 가3:側室, 나:副室, 나1:車馬, 나2:廚房, 다:前室 또는 甬道)

특히, 서한대에 들어오면서 일반 무덤에서도 묘도가 목곽묘 뿐 아니라 다른 묘제에서도 널리 채용됨에 따라 葬制의 대변혁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무덤에 여러 사람을 안치할 수 있다는 기능적인 용이성으로 인해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실제 발굴된 자료를 통해 보면 追加葬이 실시된 것은 夫婦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合葬墓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장자를 쉽게 안치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 무조건적인 추가장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합장묘가 실시됨에 있어서도 일정한 葬制度가 존속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라지며 장방형과 방형으로 묘실의 폭이 확대된다.

漢代 무덤에서 외형적인 특징의 변화는 역시 봉토를 설치하는 것이다. 商末과 西周시대의 대규모의 무덤 상부에서도 墳丘는 보이지 않는다.³⁰⁾ 이는 『禮記』檀弓에 “古也墓而不墳(옛날에는 무덤은 있지만 봉분이 없다)”와 鄭玄의 注에 “土之高者曰墳(흙이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분이라 한다)”고 기록된 것과 일치한다. 그런데, 春秋 후기와 戰國시대에 이르면 몇몇 지역의 큰 무덤에서는 지면상에 흙을 쌓아 분구를 설치하는 곳도 있다.³¹⁾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보편적으로 유행한 것은 아니며 漢代에 이르러서야 무덤 상부에 墳丘를 축조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유행하였으며 절벽에 무덤을 설치하는 崖墓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무덤 상부에는 분구를 갖추고 있다. 즉, 현존하는 대형의 墳丘墓들은 대부분 대형목곽묘, 전실묘와 석실묘 등으로 무덤 상부에 版築手法로 분구를 만들어 무덤 주인의 신분과 경제력의 정도에 따라 그 규모가 차이가 있어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다. 북경의 大葆台 漢墓 1, 2호 무덤은 燕王과 王后 무덤으로 분구의 동서 길이가 100m, 남북으로 80m에 이르는 대분구이고 현존하는 분구의 높이는 9m-10m에 이르러 大葆台라는 이름이 명명된 것이다. 분구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아래 면이 방형이면서 정상부가 뾰족한 方錐形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신분이 낮은 소형무덤의 경우 瓦棺墓, 陶棺墓, 甕棺墓 등의 土製로 만든 棺이 채용되면서 수혈식과 동혈식 두 종류가 모두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묘광에 관을 비롯한 내부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토광묘의 경우에는 수혈식과 함께 동혈식과 같이 묘광 바닥에 별도의 묘실을 마련하는 복잡한 구조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 무덤 내부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의 무덤에서 동혈식이 채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분에 관계없이 관중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묘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피장자의 안치방법에서 戰國시대는 屈肢葬이던 것이 西漢代에 들어오면 仰身直肢葬으로 변화하고 單葬墓보다는 夫婦를 중심으로 하는 合葬墓가 성행하게 된다. 서한 전기와 중기에 이르기까지 부부합장은 이전의 무덤구조에

30) 韓國河, 「論中國古代墳丘墓의 生産與發展」, 『文博』 1998-2.

31) ① 湖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湖北江陵三座楚墓出土大批重要文物」, 『文物』 1966-5.

② 固始侯古堆一號墓發掘組, 「河南固始侯古堆一號墓發掘簡報」, 『文物』 1981-1.

그리고 잘 알려진 秦始皇陵의 예 등을 들 수 있다.

서 보이는 동일한 형태로 존속되었는데 이를 ‘異穴合葬’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별도의 장례를 거쳐 각기 다른 무덤구덩이를 나란하게 근접하게 파서 피장자를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湖南省 長沙 馬王堆 1, 2호는 동서로 나란하게 있으면서 두개의 봉분토가 서로 이어져 있어 마치 말안장의 모양을 띠고 있는 瓢形墳이다. 2호의 주인은 軹侯 利蒼이고, 1호의 주인은 利蒼의 부인으로 夫婦異穴合葬 무덤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서한 중기 이후가 되면 황제의 능묘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夫婦合葬墓가 모두 채용되는 묘제의 대변혁이 있게 된다. 이러한 장제의 변화는 경사진 묘도를 가진 횡혈계 묘실이 구비된 무덤 구조의 보편화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같은 무덤에 부부가 함께 매장하기에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墓制이다. 洛陽 西漢 壁畫墓의 後室 남북 양측에 각각 인골이 1구씩 있었는데 이는 당연히 부부합장을 한 것이다.³²⁾ 또 다른 예로는 江蘇省 揚州 東風磚瓦廠 漢墓에서 1, 2, 3, 6호와³³⁾, 河北省 定縣 43號 漢墓의 경우 서쪽 後室에는 가지런히 남자인의 관곽이 안치되어 있고 동쪽 後室에는 여자 무덤주인의 관곽이 배치되어 있는 中山穆王 劉暢의 부부합장묘인데³⁴⁾ 이들 무덤은 모두 서한 후기에 편년되는 것들이다.

부부의 이혈합장이 동일 무덤칸에서 함께 매장되는 것은 묘도가 있는 구조의 변화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한대에 들어오면서 氏族의 宗法制度의 붕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³⁵⁾

이것은 漢 武帝 이후 특히, 宣帝 이후 봉건장원경제가 발전되어 경제적인 부가 집중될 수 있었고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동족관계의 개념이 약화되는 반면 부부관계가 기초된 개인의 가족관계가 강조되면서 경제적인 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이것이 바로 당시의 무덤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부합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동일무덤에 부부가 안치되어 일정한 정도의 여자 경시사상은 존속하는 것을 각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면, 揚州의 東風瓦磚廠 漢墓의 1호, 이상에서 확인된 관중지역 목곽묘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수혈식목곽묘(전국 전기)→수혈식목곽묘, 동혈식목곽묘(전국 중기)→묘도有수혈식목곽묘와 묘도

32)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洛陽西漢壁畫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4-2.

33) 揚州博物館, 「揚州東風磚瓦廠漢代木槨墓群」, 『考古』 1980-5.

34) 定縣博物館, 「河北定縣43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73-11.

35) ① 林劍明, 『秦漢史』 上·下, 上海人民出版社, 1989.

② 陰法書·許樹安, 『中國古代文化史』, 北京大學出版社, 1991.

③ 李發林, 『戰國秦漢考古』, 山東大學出版社, 1991.

표 1. 서안·낙양지역 주요 유적 특징

유적명	구조	장축 (두향)	묘 도	합장	축조 시기	비고	
陝 西 省	鳳翔縣 高庄	수혈식 동혈식 동혈식	서향, 북향		단장 단장 단장	春秋-戰國초 전국 중기 전국후-秦代	龕室
	咸陽市 黃家溝	수혈식, 1관1곽 동혈식, 1관1곽	서향45, 북향3		단장	전국 중기 전국 후기	屈肢葬 多 仰身直肢 多
	臨潼縣 上焦村	동혈식6, 수혈식2	서향	○	단장	秦代	양신직지 동혈식묘도有
	西安市 新安 機磚廠	수혈식	남북	●	단장	서한 전기	격벽
	西安市 三店村	수혈식			단장	서한 중기	대형목곽묘
	西安市 方新村	수혈식, 1관1곽 수혈식, 동혈식 동혈식	동서1, 남북1	○ ●	단장 합장 합장	서한 전기 서한 중기 서한 후기	
河 南 省	新鄉市 五陵村	수혈식 동혈식	동향	○ ● ●	합장 합장 합장	전국 중후기 서한 시대 동한 시대	仰身屈肢 磚室墓
	新安縣 鐵門鎮	동혈식 동혈식 동혈식		● ● ●	합장 합장 합장	서한 전기 서한 중기 서한후-동한	空心磚墓 空心磚墓 磚室墓
	洛陽市 金谷園, 七里河	동혈식		○	합장	서한 중기	
	洛陽市 澗西區小型墓	수혈식, 동혈식 동혈식, 수혈식 수혈식 수혈식, 동혈식 수혈식, 동혈식		○ ○ ○	단장	서한-동한	토광묘 陶棺 甕棺 瓦棺 磚棺

※ ● : 묘도가 있는 무덤이 다수인 경우 ○ : 묘도가 있는 무덤이 소수인 경우

有동혈식목곽묘(서한 전기~서한 중기)→부부합장 묘도有동혈식목곽묘, 空心
磚墓(서한 중기)→磚室墓(서한 후기~동한시대)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도표화하여 제시한 것이 표 2. 서안·낙양지역 목곽묘 일람표이다.

표 2. 서안·낙양지역 목곽묘 일람표

구분	주요 목곽묘	공반유물	유적명
전국시대			1, 4, 5, 6, 7, 8 : 陝西省 鳳翔 高塹 2, 3, 9 : 陝西省 咸陽市 黃家溝
서한시대	전기 		10, 11 : 陝西省 臨潼 上焦村 13, 15, 17, 19, 20, 22 : 陝西省 新安 機磚廠 12, 16, 23 : 陝西省 方新村 14, 18, 21 : 陝西省 鳳翔 高王
	중기 		24, 28, 29, 30 : 河南省 新鄉 五陵村 25, 27 : 河南省 新安縣 鐵門鎮 26 : 河南省 洛陽市 金谷園·七里河
	후기 		31 : 陝西省 方新村 32 : 河南省 新安縣 鐵門鎮 33~36 : 河南省 洛陽市 金谷園·七里河 37, 38 : 河南省 新鄉 五陵村
동한시대			39~46 : 河南省 洛陽市 金谷園·七里河 47, 48 : 河南省 新鄉 五陵村

5. 맺음말

본문에서는 진·한대의 문화중심지역이었던 서안·낙양지역 목곽묘에 대한 제특징을 주요 유적에서 조사된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물론, 상기한 몇몇 유적이 서안·낙양지역 목곽묘 유적 전체에서 확인된 특징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보다 다양한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본문에서 언급된 유적은 비교적 조사내용이 상세하고 변화, 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된 자료가 풍부하고 해당시기와 유구와 유물에서 계층적 다양성을 확인가능한 유적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서안·낙양지역 목곽묘의 변화 과정에 대한 특징분석이라는 면에서는 커다란 과오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할 것을 약속하며 선배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바라면서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지원하여 주신 동시이문물연구 학술재단의 심봉근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